

거칠거칠한 부엉이 방귀\*에 나의 고민이나 떨쳐버리고 싶은 것,  
또는 꿈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담아 '새'로 표현해보세요.  
내가 그린 새가 훨훨 날아가 마음 속 작은 희망이 될 거예요.

《이점원, 구도(求道)의 일기》 전시연계 활동지



소나무의 흑병으로, 경상도 지역에서는 '부엉이 방귀'라고도 부르는데,  
이는 '소나무에 앉아 있던 부엉이가 방귀를 췌어 생긴 흑'이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.



QR코드 찰라!  
영상을 시청하며  
작품을 완성해봐요.